

'아기호랑이' 윤도현 부상... 프로 데뷔 준비 잠시 멈춤

삼성과 시범경기 1-1 무승부 3루 수비 중 부딪쳐 손등 골절

KIA 타이거즈에 아쉬운 부상 소식이 전해졌다. '아기호랑이' 윤도현이 오른손 중수골 부상으로 프로 데뷔 준비를 잠시 멈추게 됐다.

KIA는 14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 3차전을 치렀다.

전날 비로 NC와의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던 KIA는 이날 한승혁을 선발로 내세워 경기에 나섰다.

1회말 수비에서 안타까운 부상 장면이 나왔다.

2사 3루에서 오재일의 타구가 좌중간 방향으로 높게 뛴다. 3루수 윤도현과 유격수 김도영이 동시에 달려갔지만 공은 그라운드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한 윤도현이 넘어지면서 김도영의 발에 손을 부딪쳤다. 이후 윤도현이 그라운드에서 손을 접질리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바로 류지혁과 교체된 윤도현은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골절 진단을 받았다.

KIA는 "1회말 수비 도중 손등 부상을 입은 윤도현은 인근 병원에서 CT 촬영 결과 3번 중수골(손등 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며 "반갑습니다"라며 손등의 부기가 빠진 뒤 다시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도현은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아무런 타격으로 눈길을 끈 신인 선수다.

김하성을 떠올리게 하는 폼으로 공격적인 타격을 하면서 선배들의 인정을 받은 '유망주' 광주일고 시절 유격수로 활약했던 그는 연습경기 시범경기에서 2, 3루도 소화하면서 전전후 내야수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12일 시범경기 첫 경기에서도 안타를 기록하는 등 많은 기대를 받으며 프로 데뷔 시즌을 준비했지만, 부상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됐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KIA는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KIA 선발 한승혁이 1회말 먼저 실점했다.

1사에서 구자욱에게 우전안타를 맞은 한승혁이 폭투로 진루를 허용했다. 2루수 김선빈의 좋은 수비로 투아웃을 만들었지만, 오재일의 타구가 외야에 떨어지면서 3루에 있던 구자욱이 홈에 들어왔다.

한승혁이 2회말 김동엽에게 헛스윙 삼진을 뽑아내는 등 삼자범퇴로 이닝을 정리하자 3회초 KIA 타선도 움직였다.

1루수 겸 7번 타자로 나온 김석환이 선두타자로 타석에 섰고, 양창섭을 상대로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이어 류지혁과 김민식이 외야 플라잉볼을 몰러냈지만, 김도영이 좋은 타이밍으로 중전안타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선빈이 우전 안타를 날리면서 김석환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후에는 양 팀이 마운드 헛겨루기를 하면서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선발 한승혁이 4이닝을 소화하면서 2피안타 1볼넷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고, 이어 박건우-이준영-홍상삼-장현식-이승재가 실점 없이 남은 이닝을 책임지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시범경기에서는 연장전이 진행되지 않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윤도현

KBO 올스타전 7월 16일 개최 3년 만에 잠실에서 열린다

KBO 올스타전이 잠실에서 3년 만에 열린다.

KBO와 10개 구단은 2022 올스타전 장소를 잠실로 결정했다.

앞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연속 진행되지 못했던 올스타전은 KBO리그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다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 KBO는 지난 40년을 추억하고,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을 계획이다.

잠실에서 올스타전이 열리는 건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올스타전은 토요일인 7월 16일 열리며,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올스타브레이크가 적용된다.

올 시즌 이대호의 '은퇴투어'도 펼쳐진다.

KBO는 "10개 구단과 의논해 올 시즌을 마친 후 현역 은퇴를 예고한 롯데 이대호에 대해 그동안 리그와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준 공로를 존중, 은퇴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KBO리그에서 10개 구단이 함께하는 은퇴투어가 진행되는 것은 2017년 '국민타자' 삼성 이승엽 이후 두 번째다.

이대호의 은퇴투어 이벤트는 각 구단의 롯데 홈경기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세부 계획은 추후 발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쓰러진 '황소' 황희찬 14일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튼 대 울버햄프턴의 경기에서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오른쪽)이 도니 판 더 비크(에버튼)와 충돌로 인한 부상으로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황희찬은 이달 말에 예정된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란전에 참가가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벤투호, 손흥민 호출... 이란 잡고 조 1위 노린다

24일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예선 황희조·김민재 등 유럽파 소집 한국 축구 자존심 걸고 승리 다짐

벤투호가 이란과의 '아시아 축구 자존심 대결'을 앞두고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황희조(보르도) 등 최정에 골잡이들을 불러 모은다.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3월 A매치 기간에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A조 9~10차전(24일 이란과 홈경기·29일 아랍에미리트와 원정경기)에 나설 태극전사 25명의 명단을 14일 발표했다.

'에이스' 손흥민을 비롯해 벤투호 최다 득점자인 불박이 원톱 스트라이커 황희조, '황소' 황희찬, '괴물 수비수' 김민재 등 대표팀 주축이 그대로 이번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현재 한국은 A조 2위(승점 20)에 올라있는 한국은 3위(승점 9) 아랍에미리트(UAE)와 승점 차를 11로 벌려, 최종예선 남은 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조 2위 팀까지 주어지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가능한 최고의 자원을 끌어모았다. 한국 축구의 자

존심을 걸고 '라이벌' 이란에 승리해 조 1위로 최종예선을 마치겠다는 의지가 담긴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란 역시 조 선두(승점 22)로 카타르행을 확정했는데, 이번 맞대결에서 한국이 승리하면 조 1위로 올라서게 된다.

벤투호는 원정으로 치른 이란과 최종예선 4차전에서는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은 뒤에 1-1 무승부를 거뒀다.

더불어 한국이 이번 이란, UAE와 최종예선 9~10차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조추첨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랭킹을 끌어올릴 수 있다.

FIFA는 세계 랭킹에 따라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 팀을 4개 포트로 나눠 조를 짜는데, 상위 포트에 속할수록 약팀과 같은 조에 묶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내심 3포트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에서 뛰는 골키퍼 김동준과 서울 이랜드에서 활약하는 수비수 이재익이 오랜만에 대표팀에 소집됐다.

김동준은 2018년 1월 터키 전지훈련 이후 처음으로 소집됐다. 이재익은 2019년 10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이후 첫 소집이다. 두 선수 모두 A매치를 뒀 경험은 없다.

벤투호 2선에서 공격 전개를 맡는 황인범(카잔)은 지난달 소속팀 경기에서 다친 발가락 골절 영향으로 이번에 발탁되지 못했다.

한국은 2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과 9차전을 치른다. 이어 UAE로 건너가 29일 오후 10시 45분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UAE와 마지막 10차전을 소화한다.

/연합뉴스

카타르 월드컵 3월 최종예선 벤투호 선수 명단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A조 9~10차전

• 24일 이란전(홈)

• 29일 아랍에미리트전(원정)

FW
조규성(김천), 황희조(보르도)
MF
정우영(말사드), 박승호·송민규(전북), 김진규(부산), 이재성(마인츠), 권창훈(김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나상호(서울)
DF
김민재(페네르바체), 박지수(김천), 권경원(김포아사카), 이재익(서울이랜드), 윤종규(서울), 김진수(전북), 박민규(수원FC), 김영권·김태환(울산)
GK
조현우(울산), 김승수(가시와 레이슬), 김동준(제주유나이티드), 송범근(전북)

/연합뉴스

광주FC 이요름 4라운드 MVP



2도움으로 광주 3연승을 이끈 이요름(사진)이 4라운드 MVP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2 25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안산 원정에서 2-0 승리를 거둔 광주에서 'MVP' 이요름을 포함해 이견희(FW), 두현석(MF), 안영

규(DF) 등 4명이 동시에 베스트11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지난 12일 안산그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16분 터진 이견희의 선제골과 후반 17분 기록된 두현석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앞선 대전전에 이어 다시 한번 무실점 경기까지 펼치면서 FA컵 포함 3연승을 달렸다.

한편 개막 4경기 만에 전남드래곤즈의 시즌 첫 골을 장식한 장성재도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경남 원정에 나섰던 전남은 전반 15분 터진 장성재의 골로 1-1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전반 26분 나온 카차바라의 역전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앞선 3경기에서 득점 없이 1무2패 기록했던 전남의 시즌 첫 승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후보들 줄줄이 컷 탈락

연일 비바람이 불어닥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선수들이 줄줄이 컷을 통과하지 못하고 짐을 싸들었다.

악천후 때문에 대회 나흘째인 14일(한국시간) 겨우 2라운드를 끝내며 세계랭킹 2위 폴린 모리카와, 7위 잔더 쇼펠레, 18위 브룩스 켄가(이상 미국)가 3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세계랭킹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모리카와는 1라운드 73타에 이어 2라운드에선 75타를 쳐 총합계 4오버파로 컷 기준 타수에 2타 모자랐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1라운드를 73타를 마친 쇼펠레는 2라운드에서 6타를 잃어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약명 높은 18번 홀(파4)에서 티샷을 물에 빠트린 뒤 병커를 전전하다 트리플보기를 적어낸 게 뼈아팠다.

1라운드를 72타로 넘긴 켄가는 2라운드에서 트리플보기를 1개, 더블보기 2개, 보기 4개를 쏟아내며 9오버파 81타를 적어냈다. 대회가 열린 TPC 소그래스의 상징인 17번 홀(파3)에서 티샷을 물에 집어넣고 세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리 고선 3퍼트를 했다.

조던 스피스, 웨브 심프슨, 토니 피나우(이상 미국), 애덤 스콧, 제이슨 데이(이상 호주)도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디펜딩 챔피언인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185야드에서 샌드웨지를 치고, 195야드에서 5번 우드를 질러낸 샷바람과 뒤바람이 정성없이 불었다고 밝혔다.

2라운드 맨 마지막 조에서 경기한 스톱 피어시(미국) 덕분 로리 매컬로이(북아일랜드)와 스코티 세플리(미국)는 컷 탈락을 모면했다.

/연합뉴스